

“전라선 철도 노선에 간이역 신설·무궁화호 정차 필요”

광양만권 공항활성화협의회 개최
여수공항 활성화·연계 교통망 확충
40억원 규모 저비용·고효율 SOC
접근성 향상·관광객 유입 확대 ↑



광양만권공항활성화협의회가 최근 여수상공회의소에서 실무위원 회의를 열고 여수공항 간이역 신설 및 여수세계섬박람회 연계 교통망 구축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여수상공회의소 제공)

여수공항의 고질적인 접근성 문제를 해결하고 '2026여수세계섬박람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지원하기 위한 전라선 철도 간이역 신설 논의가 본격화됐다.

17일 여수상공회의소에 따르면 광양만권공항활성화협의회는 최근 소동마루에서 '2026년 제1차 실무위원 회의'를 열고 공항 활성화와 연계 교통망 확충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협의했다.

이번 회의에는 전남도와 여수·순천·광양시 관계자를 비롯해 한국공항공사 여수공항,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진에어 등 항공사, 관광·MIC E 관련 협회 실무위원들이 대거 참석했다.

회의는 최우선 과제로 여수공항 인근 전라선 철도 노선에 무인 간이역인 가정 '여수공항' 역 신설과 무궁화호 열차 정차 추진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했다.

현재 여수공항은 철도 노선이 인근을 통과하고 있음에도 정차역이 없어 이용객들이 승용차와 택시에만 의존하는 실정이다.

특히 한국공항공사 고객만족도(PCSI) 조사에서도 교통 접근성 불편은 여수공항 이용객의 가장 큰 불만 사항으로 꾸준히 지적돼 왔다.

협의회가 검토한 방안 따르면 공항 인근 국유지에 신규 간이역을 설치할 경우 별도의 토지 매입이 필요 없으며 여객청사와의 약 200m 거리로 접근성이 매우 뛰어나다.

사업비는 40억원 수준으로 추산되며, 이는 청주공항역 사례처럼 대규모 예산 투입 없이도 철도와 공항의 연계성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는 저비용·고효율 광역 SOC 사업이라는 분석이다.

무궁화호 열차가 하루 6~8회 정차할 경우 여수·순천 도심에서 여수공항까지 10분내외의 접근이 가능해지며, 전남·전북권 단체관광객 유입 확대와 남해안 관광벨트 활성화, 공항 수요 기반 확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참석 위원들은 여수공항 간이역이 단순한 편의시설을 넘어 향후 '전남관광통합특별시' 시대를 대비한 광양만권 공동 생활·경제권 형성과 복합교통체계 구축을 위한 핵심 기반 인프라라는 데 뜻을 같이했다.

이어 오는 9월에 개최되는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기간 국내외 방문객 편의를 위한 연계 교통망 구축 방안도 논의됐으며, 공항 기점 시내버스의 긴 배차 간격을 보완하기 위해 공항에서 주행사장인 진모지구로 직행하는 셔틀버스 운영이 제안됐다.

여수상공회의소 관계자는 "여수공항 간이역 설치와 무궁화호 정차는 여수·순천·광양을 하나의 광역생활권으로 연결하는 핵심 기반 인프라"라며 "정부와 관계기관에 관련 내용을 지속 건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여수=김진석 기자

장흥군, 전입세대 지원으로 인구 유입 '활성화'

노후주택 수리비 최대 500만원 보조

장흥군이 지역으로 전입하는 세대의 초기 주거 비용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정착을 돕기 위해 노후주택 수리비를 직접 지원한다.

17일 장흥군에 따르면 올해 총 8세대를 대상으로 가구당 최대 500만원의 '전입세대 희망 주택 수리비'를 지급한다.

지원 대상은 타 시·군·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다가 2024년 2월 19일 이후 장흥군으로 전입한 세대다.

지원금은 본인 또는 세대원이 소유한 노후주택의 시설 개선과 수리 용도에 한해 사용할 수 있다. 특히 이번 사업은 기존 귀농·어업인 중심

의 주택 수리비 지원이 가졌던 제약 조건을 보완해 혜택 범위를 대폭 넓힌 것이 특징이다.

그동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던 일반 귀촌인과 고향으로 돌아온 향우 전입세대까지 사업 대상에 포함시켜 주거복지의 사각지대를 해소했다.

지난해 처음 도입된 사업은 농산어촌 인구 감소에 대응하는 생활밀착형 시책으로 꼽히며, 도입 이후 현재까지 총 27가구에 1억1400만원의 수리비가 지급됐다.

장흥군 관계자는 "단순한 전입 유도를 넘어 전입세대가 지역 공동체에 완전히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핵심이다"며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인구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장흥=노형록 기자



담양군-나주시, 고향사랑기부금 상호 기탁

공직자 47명 동참...각 250만원씩 전달

담양군과 나주시가 고향사랑기부제 상호 기탁을 통해 지역 소멸 위기 극복과 동반 성장을 위한 굳건한 협력 관계를 다졌다.

17일 담양군에 따르면 최근 군청에서 이정국 담양군수 권한대행과 강상구 나주시장 권한대행 등 양 지자체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고향사랑기부금 상호 기탁식을 가졌다. <사진>

이번 기탁에는 담양 공직자 25명과 나주 공직자 22명 등 총 47명이 자발적으로 뜻을 모았다. 이들은 각각 250만원씩 총 5000만원의 기부금을 서로의 지자체에 전달하며 고향 발전을 응원했다.

특히 전남도 에너지산업육성 등 요직을 두루 거친 행정 전문가인 강상구 나주시장 권한대행이 담양 출신이라는 각별한 고향 사랑이 더해져, 제도의 본래 취지와 양 지자체 간 상생 협력의 의미를 한층 더 깊게 만들었다.

군은 이번 교류를 마중물 삼아 향후 관광·문화·행정 등 전 분야에 걸쳐 폭넓게 협력하고 실질적인 상생 발전을 도모하는 든든한 교류망을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이정국 담양군수 권한대행은 "전남의 역사적 뿌리를 같이하는 나주시와 상호 교류의 인연을 맺어 매우 뜻깊다"며 "이번 상호 기탁이 서로의 지역을 응원하며 함께 도약하는 훌륭한 발판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담양=정승균 기자

보성군, 햇빛소득마을 공모 선정 '총력'

전략회의 개최 유관기관 협력망 구축

보성군이 재생에너지 발전 수익을 주민과 공유하는 '햇빛소득마을' 공모사업 선정과 안정적인 추진 기반 마련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17일 보성군에 따르면 최근 군청 소회의실에서 '햇빛소득마을 추진단 전략회의'를 열고 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과 세부 대응 전략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에는 한국전력공사와 한국농어촌공사 등 유관기관 관계자와 에너지 전문가들이 참석해 전력 계통 연계 가능성과 공공 유희부지 활용 방안을 검토했다. 특히 지역 내 전력 계통

포화로 신규 사업이 어려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에너지저장장치(ESS) 설치를 통한 계통 안정화 방안을 심도 있게 모색했다.

햇빛소득마을은 마을 유희부지에 태양광을 설치해 수익을 나누는 주민 참여형 사업으로, 올해 공모 1차 접수는 오는 31일, 2차는 7월31일까지 진행된다.

이상철 보성군수 권한대행은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전력 계통 확보 등 당면 과제를 속도감 있게 해결하겠다"며 "군민이 실질적인 혜택을 체감하도록 공모 선정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보성=임병기 기자

'화순형 장애인 의료요양 통합돌봄' 체계 강화

郡-보성 씨목씨목의원, 업무협약

내과·재활의학과 등 필수의료 지원

대상자 발굴·의료 사각지대 해소

화순군이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들이 살던 집에서 편안하게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방문의료 기반의 통합돌봄 체계 구축에 나선다.

17일 화순군에 따르면 최근 군수실에서 보성군 소재 '씨목씨목의원'과 장애인건강주치의 사업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들이 살던 집에서 편안하게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화순형 장애인 의료요양 통합돌봄'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 기관인 씨목씨목의원은 전남 지역 내 8개소 뿐인 장애인건강주치의 시범기관중 하나로, 향후 내과·신경과·재활의학과 등 필수 진료 과목을 바탕으로 전문적인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군은 이번 협약을 발판 삼아 방문의료에 필요한 대상자를 상시 발굴하는 체계를 가동하고, 관내 병·의원과의 협력망도 지속적으로 넓혀 의료 서비스의 연속성을 확보할 방침이다.



최근 화순군청 군수실에서 '화순형 장애인 의료요양 통합돌봄' 체계 강화를 위해 진행된 장애인건강주치의 업무협약식 모습. (화순군 제공)

이러한 성과는 지역 의료 인프라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선제적 행정의 결과로, 앞서 군은 올해 초 65세 미만 지체·뇌병변 중증 장애인 198명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벌여 방문 진료가 시급한 의료 고위험군을 가려냈다.

관내 의료기관의 직접적인 참여가 여의치 않은 상황이었지만, 인근 지자체의 역량 있는 시

범기관을 발굴하고 직접 협의를 이끌어내며 의료 사각지대 해소의 돌파구를 마련했다.

양보남 통합돌봄과장은 "행정-제도적 지원 방안을 두루 마련해 지역 병·의원의 참여를 점진적으로 확대하겠다"며 "민관이 유기적으로 협력해 화순형 통합돌봄 모델을 탄탄하게 완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화순=이병철 기자

“고흥스태이 생활인구 유입·지역경제 활성화 성과”

郡, 행안부 공모 사업 총 226명 유치

고흥군은 도시민을 대상으로 한 지역 체류형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생활인구 유입과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일석이조의 성과를 거두고 있다.

17일 고흥군에 따르면 행정안전부 공모 사업으로 지난 2023년부터 추진해 1~6기로 운영을 마친 '두 지역 살아보기 고흥스태이' 사업에 총 226명의 도시민이 참여한 것으로 집계됐다. <사진>

'고흥스태이'는 고흥에 관심을 갖고 여가·휴양·체험 등의 목적으로 지역에 정기적으로 체류하고자 하는 도시민을 대상으로 거주 공간을 제공하고, 다양한 체험과 주민 교류 프로그램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특히 참가자 중 38명(약 16.8%)이 단기 체류를 위한 전입신고를 마



쳤으며, 이 가운데 2명은 실제 귀농·귀촌으로 정착해 실질적인 인구 유입 효과를 입증했다.

사업 기간 체류 기간 세대당 식비와 특산물 구매 등으로 평균 160만원을 소비했으며, 지인 방문객 소비액을 합치면 연간 총 1억5천만원에

달해 지역경제에 미친 긍정적 효과도 컸다.

또한 참가자 1세대당 평균 12명의 지인을 초대해 연간 800명 이상의 생활인구가 고흥을 방문했으며, 전체 참가자의 73% 이상이 수도권 및 광주 출신으로 나타났다. /주성학 기자

기본소득·돌봄 연계...곡성 농촌형 복지모델 실증

郡, 3년간 국비 3억3천만원 투입

군민 생활 안정·공동체 회복 주력

곡성군이 지역 기본소득과 연계해 주민 생활·돌봄 서비스를 통합 제공하는 맞춤형 복지 생태계 조성에 나선다.

17일 곡성군에 따르면 최근 보건복지부 산하 중앙사회서비스원이 주관하는 '복합사회서비

스 운영모델 실증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됐다.

이 사업은 읍·면 단위 생활권 주민을 위해 돌봄·이동·생활지원·여가 등의 복합 서비스를 통합 제공하는 농촌형 복지모델이다.

군은 다음 달부터 2028년까지 3년간 전액 국비 3억3천만원을 투입해 '농촌 주민의 일상과 돌봄, 사람과 자원을 잇는 산돌봄 프로젝트'를 주제로 실증 사업을 추진한다.

특히 군에서 현재 추진 중인 농어촌 기본소득

과 연계해 면 지역 기초 생활서비스에서 소외된 주민의 생활돌봄서비스와 공동체 회복을 함께 지원하는 새로운 복지 모델을 실증할 계획이다.

운영은 전남도사회서비스원이 총괄하며, 판안디협동조합과 곡성자활센터 등 지역 내 사회적 연대조직들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공동 참여한다.

주민들은 제공받은 돌봄 서비스를 지역사랑 상품권(기본소득)으로 결제할 수 있으며, 발생한 기본소득 매출액 일부는 자체 기금으로 다시 조성돼 지속가능한 운영 체계를 뒷받침할 예정이다. /곡성=김영필 기자